

KOSHA 18001 인증 최초의 지방 공기업

100만 성남시민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은 성남시가 출자하여 만든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최근에는 KOSHA 18001을 인증 받으면서 안전한 지방공기업으로도 이름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지방공기업 최초로 안전경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명실공히 안전한 공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성남지회와 함께 근로자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손의 손을 맞잡고, 오늘도 조동호 지도원과 무재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을 이끌고 있다.

머리말

성남시가 출자한 시민의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수정·중원도서관, 청소년심신수련의 요람인 수정청소년수련관, 안전하고 청결한 공영주차장,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율동·양지공원 그리고 신개념 체육문화공간인 탄천종합운동장 등 22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 주이용객들이 시민이다보니 760여명의 근로자들의 안전은 물론 시민의 안전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일반 제조업과 달리 기계 또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자칫 사고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안전의 개념은 근로자의 안전을 넘어 시민의 안전까

지 의미한다.

KOSHA 18001 인증

안전공단으로부터 KOSHA 18001을 인증받은 것은 지난 6월 7일이다. 지방공사 최초로 안전경영시스템 도입 사업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격적인 안전체계의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시작에 있다.

처음 인증받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위험요소가 도출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대한산업안전협회 성남지회의 도움으로 성남시 시설안전관리공단만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었고, 그 결과 1,400여개의 위험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제조업체처럼 공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는 없으나, 위험성평가 주 포인트를 이용객에 관점을 두어 운동장, 수영장, 주차장 등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





는 시설물 위주로 도출하였다.

이로써 성남시 시설안전관리공단은 KOSHA 18001을 지방공기업 최초로 인증 받게 되었다.

안전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을 위해

우선 외적으로 안전이 있다. 안전의 포인트를 시민의 안전에 두는 것인데, 그 중 하나가 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철저한 안전표지판 설치와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이용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해 코치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과 코치로 하여금 이용객에게 개인별 안전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교육안전시스템이 대표적이다.

다음은 내적인 안전이다.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무재해 선포식으로 시작된 무재해 목표달성이 있고, 이로 하여금 22개 시설물에서 함께 무재해 운동이 한창이다.

이렇게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다각적으로 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성남시 시설안전관리공단에는 안전의 동반자인 대한 산업안전협회 성남지회가 있다.


성남지회 조동호 지도원은 공단에서 소홀히 할 수 있고, 전문적인 안전기술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 기계나 고정물에 대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지도한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용객의 안전과 22개의 사업장과 본사와 연결되는 중간개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안전한 성남시 시설안전관리공단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향후계획

KOSHA 18001은 인증을 받는 것보다 유지·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공단에서는 금년을 KOSHA 18001을 직원들에게 인식시키는 해로 정하고, 내년부터 적용기를 통해 활성화를 꾀한 다음 3년 안에 정착을 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재개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유지·정착 시키고, 위험성평가를 통한 1,400여개의 개선 사항중 50%를 금년에 개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로써 이곳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다. 

〈최종덕 기자〉

KOSHA 18001은 우리의 커다란 자부심

우리는 생산하는 사업체가 아니지만 직원들의 안전의식 결여 등으로 전도, 미끄럼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부주의 이지만 안전교육의 불충분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안전경영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 KOSHA 18001 인증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작한 것이 KOHSA 18001 인증인데, 전국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직원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의 안전문화가 타공단에까지 확산되어 안전에 대한 경각심,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면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KOSHA 18001을 인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유지보수하여 지속시킴으로써 명실공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새로운 안전문화로 정착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 직원들에게 주기적인 교육과 점검반 편성으로 자체점검 뿐만 아니라 총무부에 팀을 구성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바람이 있다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안전이 경영에 접목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경호 부장